

월요논단



김 동 운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어느 시골에 이웃마을 총각과 결혼을 앞둔 19세 처녀가 있었다. 1947년 봄 날 어머니를 따라 혼수를 장만하러 나간 그녀는 신집살림용 식감을 사서 가방에 넣은 직후 영문도 모른 채 난리 속에 휘말리면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쫓고 쫓기는 패거리들의 싸움에 휩쓸려 옷과 식감이 피가 묻은 상황에서 불뼉이 치지개 돼버린 것이다. 그녀는 식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냐고 추궁당하며 고문에 시달렸다. 그렇게 1년 수감생활을 하다가 총살되기 직전에 석방되지만, 귀가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과 정치범이라는 죄명이었다. 이웃마을 총각의

2·28소설의 번역을 기대하며

아버지는 파혼을 통보해왔고, 그녀는 감옥과 형장의 증격으로 온종일 중얼거리다가 밤중에 쓰다나곤 했다. 사태 10년 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점점 미친 여자가 돼버린 그녀는 1967년 여름날 급기야 철로 위에 서서 달려오는 기차를 맞이한다. 이는 타이완 작가 림쌍부가 1983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황추의 작은 연대기'의 내용이다. 타이완 현대사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소설에서 주인공 황추가 휩쓸린 사건은 바로 '2·28항쟁'이었다. 장밋빛 희망으로 충만하던 여인의 삶이 우연히 맞닥뜨린 사건의 와중에서 항쟁을 진압하는 거대한 폭력에 의해 나락으로 끌어내려짐으로써 처참히 파멸돼버린 것이다. 타이완 민중의 수난과 억울한 희생의 문제가 인상적으로 부각된 작품이다. 나는 공동연구진의 일원으로 '역동하는 섬의 상상력: 오키나와-타이완-

제주 소설에 나타난 폭력과 반(反)폭력의 양상'이란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 소설을 겨우 읽었다. 이 작품이 아직 국내에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인에게 번역을 부탁해 읽느라고 진땀 뺐던 기억이 새롭다. 4·3소설과 오키나와전쟁소설 그리고 2·28소설을 비교 고찰하는 과제가 연구진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었으므로 어느 하나를 빼놓은 채 논문을 작성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2·28소설의 국내 번역이 전무함에 크게 놀랐다. 근래에 활발히 소개되는 오키나와전쟁소설만큼은 아니어도 다소는 번역됐으리라 여기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다. 중 국문학 연구자에 의해 관련 논문이 몇 편 나오고 작품목록도 정리됐지만, 번역된 소설은 단 한 편도 없었다. '비정성시'란 2·28영화화 한국에서 널리 상영됐어도, 여타 타이완 소설이 더러 번역되긴 했어도, 2·28소

설은 번역 작품을 찾을 수 없었다. 실로 충격이었다. 문학작품의 번역은 매우 중요하다. 김석범의 일본어소설 '화산도'가 2015년 완역된 후에 얼마나 많이 읽히고 관련 논문이 나오고 있는가. 메도루마순, 마타요시 에이키, 오시로 사다토시 등의 오키나와소설들도 계속되는 번역에 힘입어 적잖이 회자되고 있음이 현실이 아닌가. 우리는 그러한 작품들을 접하면서 4·3 인식의 폭을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4·3과 관련하여 2·28에 대한 관심이 적잖았다. 비교연구도 진행되어 왔고, 교류도 있어왔다. 제주 4·3평화재단에서도 교류 행사를 여러 차례 가진 것으로 안다. 앞으로는 2·28문학 번역 사업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주에 관련 학과와 전문기자들이 여럿 있는 만큼 4·3평화재단에서 번역지원에 적극 나서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설

공급과잉 숙박시설, 계속 늘어 우려된다

제주도내 숙박업계가 갈수록 설상가상입니다. 알다시피 숙박업계는 객실 공급과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잉공급의 불통이 제갈 깎아먹기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숙박시설의 수가 제동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도내 숙박시설은 꾸준히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숙박시설은 5897곳으로 전년 동월(5635곳)에 비해 4.6%(262곳)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4·3평화재단에서도 교류 행사를 여러 차례 가진 것으로 안다. 앞으로는 2·28문학 번역 사업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주에 관련 학과와 전문기자들이 여럿 있는 만큼 4·3평화재단에서 번역지원에 적극 나서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평화의 섬 제주' 후속사업 부진 각성해야

'세계 평화의 섬 제주'가 도민들 뇌리에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지정 당시만해도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만큼 제주를 상징하는 최고의 대표 브랜드였었습니다. 무려 15년이 지난 현재 '평화의 섬 제주'를 대표할 만한 후속사업들이 지지부진합니다. 그간 제주도가 후속사업 추진에 얼마나 의지를 보였는지 각성해야 할 상황입니다. 최근 도의원들이 연이어 '세계 평화의 섬' 후속사업 지지부진을 성토했습니다. 강철남의원이 지난 19일 특별자치도 출범보다 더 앞서 세계 평화의 섬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중 여태껏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수두룩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7대 평화실천사업중 현재 완료 사업이 7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아주 오래전 마무리된 사업이라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민숙의원도 장기간 표류중인 옛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조성

열린마당

온택트 시대, 장애인 통합돌봄의 필요성



김 현 준
제주시장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유행하게 됐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경우 이러한 온택트 서비스에 적응하지 못해 정보의 격차가 심해지는 '온택트 디바이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또 기존의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대면 서비스를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서비스의 제한이 생기고, 그로 인한 가정에서의 돌봄 부담은 더 가중되는 문제를 낳았다. 비대면이 일상인 시대에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제공되던 서비스체계가 무너지고, 돌봄과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집에 묶인 현실에서 새로운 복지서비스 및 돌봄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포

옹적 국가를 목표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온택트 시대의 장애인 복지의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복지와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홈케어 서비스'의 경우 장애인 가정에 가스차단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사고발생시 119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IoT를 활용해 원격으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돌봄, 주거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이 '온택트 시대'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누리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온택트 시대에서 복지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기회이다. 제한된 환경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통한 스마트복지가 가능해진다. 즉, 공간적 개념을 벗어나 기술혁신 및 협력을 통해 전문성 있는 '복지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 온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체계가 하루빨리 구축되길 기대한다.

뉴스-in

원 지사, 국비 확보 막판 노력 통할까

국회 예결위에 협조 요청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 심사가 이달말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도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 행보. 원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의 방문, 예결위원장 등을 만나 제주도 관련 21개 사업 과제(총 478억원)에 대한 국비 증액을 당부. 원 지사는 "코로나 사태로 전례 없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방채수 및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오은지기자 우리동네 안전은 우리가... ○...제주시는 지난 20일 안전보안관 20여명과 함께 삼성초등학교, 보성시장 일대를 돌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제거 활동을 전개. 이 활동은 생활주변의 안전 위협요소를 점검하고 시정·개선을

유도하는 활동으로 도로 파손, 불법 주차 등을 점검하고 시급 사항은 관련부서에 신고. 시 관계자는 "도에서 제작한 안전신고 스티커를 위험요소에 부착·신고함으로써 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위험요소를 확인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속의형 공론화' 절차 제안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에 '속의형 공론화' 절차를 제안. 이 교육감은 20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양병우 의원이 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설을 제안하자 같이 답변. 이 교육감은 "학생문화원 옆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지을 당시 도의원들이 우회도로를 지하차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이 이렇게 갈등상황이 됐다"며 도의회에 속의형 공론화 절차를 요청. 송은범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파명운씨 율선(향년 96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0년 11월 23일
아들 고순남 며느리 김명월
손권 순권
손창 허영화
딸 고순자 사위 강세홍
손희 이상진

상속한정승인공고
*성명: 망 김행철(540823-1-*****) 2020. 7. 23. 사망
*최후주소: 서귀포시 대정읍 도원로 139-6(신도리 1619)
망 김행철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권정 심판결정을 받음에 따라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 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제주지법민사 2020-단 10241 상속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 11. 18.
*청구인: 김수환 외 2
*공고기간: 2020. 11. 부터 2021. 1. 까지
*청구인의 주소: 제주시 신대로18길29(연동 294-15)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아고 있는 일
▶ 키본·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01 원저용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064)724-0991
핸드폰: 010-3639-005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할머니 밀양박씨 산옥(향년 91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0년 11월 23일
며느리 임경자
손자 고원희
손녀 고진영
손부 차미경
손사 최하나
손사 윤정원
며느리 임경자
손녀 고이준
손사 윤도후

농지. 전. 필수농업 고민
한번 식재로 수년간 수확 퇴직후 심신마음 작물과 소통
제주먹고사리뿌리와 등글레뿌리
퇴밭 전.밭.식재 관리 수확안내
15kg 1박스 [15평-20평식재]
1박스당 택배비포함 58,500원
심는방법·관리와 수확 상세 안내
상담전화 010-2691-9316 064)783-8987
농림계좌 901055-52-018318
제주약령력을 품은연구센터 한기림농장 대표 이기숙

단체반수시모집
즐거움 삶과 다이어트를 위하여 탐라맨스교실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교댄스: 지루박, 부르스, 트로트, 댄스, 민요
시간: 평일~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댄스스포츠 단체반: 자이브, 롬바, 왈츠
시간: 토요일 오후 5시 ~ 오후 6시
시간: 화요일 오후 7시 ~ 오후 8시
자격: 개인, 부부, 직장인 단체
나이 관계없이 걸을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도
탐라맨스스쿨
중앙타미빌 2층 ☎753-5308